



남원 아영면, 취약계층 가구에 밀반찬 배달

남원시 아영면 새마을남녀협의회는 지난 12일,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 직접 밀반찬을 만들어 배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남원시 새마을지회와 아영면 새마을남녀협의회의 공동기금 마련으로 이루어졌으며, 아영면 1일1가구 소통행정과 병행 거동이 불편한 26가구를 방문해 밀반찬 지원하고 개별 상담 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다.

아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홀로 끼니를 챙기지 못하는 가구에 '아영이네 반찬, 흥부가 기가막혀!'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여, 매달 두 차례 밀반찬을 가정에 배달하면서 안부를 확인하는 1일 1가구 소통행정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보절면 · 보건소, 농촌일손돕기 진행

남원시 보절면과 시 보건소는 최근, 영농철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하는 농촌 일손 돕기를 진행했다.

이번 일손 돕기는 보절면과 보건소 직원 30여 명이 함께 참여, 보절면 과동 마을에 오디 농가의 수확 작업에 힘을 보탰으며, 해당 농가는 "본격적인 오디 수확 시기에 일손을 구하기 힘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날씨에 아침 일찍부터 도와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또한, 직원들은 보절 관내 마을 입도에 불법 투기된 대량의 폐기물을 수거하여 민원 해결해 마을 주민들부터 환영 받았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산동면 · 덕과면, 매트리스 청소 실시

남원시 산동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안길재)와 덕과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상월계)는 위생 관리가 어려운 독거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문 장비를 갖춘 청소 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매트리스 내 먼지, 진드기, 오염물 등을 제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어르신은 "혼자서는 매트리스를 제대로 치울 수도 없는 격정이었다는데, 이렇게 직접 와서 깨끗하게 청소해 주니 고맙고 마음이 놓인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지전대서 지역사회구강보건 현장실습 평가회

전주지전대학 치위생과는 지난 13일 본교 한미성관 301호에서 지역사회구강보건 현장실습 평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습은 전주시보건소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 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화원요양원, 하늘나무복지원, 전주 시내 주간보호센터 등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진행됐다.

이에 학생들은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대상자의 구강위생 상태를 확인하고, 개인별 구강관리계획 수립 및 실천지도를 수행하며 실무 역량을 키웠다.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 구강건강관리를 실시하며 치과위생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체감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장은성 기자

인사

전북특별자치도

◇국장급 승진 ▲인구청년정책과 장 이장우 ▲기업유치과장 조광희

◇과장급 승진 ▲문화산업과 문 화정책팀장 윤효선 ▲총무과 인사팀장 이상욱 ▲정책기획관 기획팀장 조성연 ▲농생명정책과 농생명정책팀장 정도건 ▲도로교통철도과 도로계획팀장 신형남 ▲농업기술원 농업환경과 서상영

◇팀장급 승진 ▲교육협력추진단 김룡 ▲유산과리와 소장자 ▲여성가족과 이은주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전소현 ▲감사위원회 사무국 정은영 ▲탄소중립정책과 진은아 ▲농생명정책과 배규 ▲산업지원과 정계순 ▲동물위생시험소 김승용 ▲동물방역과 조영숙 ▲동물방역과 진재권 ▲감염병관리과 이수영 ▲평가대응과 김겨수 ▲농촌사회활력과 이주석 ▲주택건축과 장도광 ▲농업기술원 최규환 ▲동물방역과 조성우 ▲보건환경연구원 박종호 ▲보건환경연구원 김종신 ▲보건환경연구원 류재용 ▲보건환경연구원 박소영

곽영우 · 최영민 대학원생, 대통령과학장학금 수상

전북대 남창우 교수 연구실 소속 학생들… 이례적으로 해당 장학금 동시 선정 영예

전북대학교 유기소재첨유공학과 곽영우(석·박사 통합과정) 학생과 최영민(석사과정) 학생이 과학기술 분야 최고 권위의 장학금인 '2025년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수혜자로 나란히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두 학생은 남창우 교수의 지도 아래 연구 역량을 키워온 인재들로, 같은 연구실 소속 학생 두 명이 동시에 해당 장학금을 받게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과학장학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장학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국가장학사업으로, 세계 수준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목표로 매년 이공계 대학원생 중 우수자를 선발해 지원한다. 올해는 전국에서 석사과정 50명, 박사과정 70명 등 총 120여 명이 선발됐으며, 장학생에게는 석사 최대 4학기, 박사 최대 8학기까지 월 15만 원(석사) 또는 200만 원(박사)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특히 이 장학금은 다른 정부 및 민간 지원과 중복 수혜가 가능해 연구 몰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곽영우 학생은 "학부 시절부터 이어진 교수님의 헌신적인 지도와 연구실 선배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며 "앞으로 지속가능한 첨단소재 개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남기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영민 학생은 "학부 연구생 때부터 시작한 연구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어 기쁘다"며 "지나해 한국



왼쪽부터 남창우 교수 · 곽영우 · 강진혁 · 최영민 학생.

연구재단 석사장학금에 이어 이번 수상까지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1차 면접 대상자 180명 가운데 같은 연구실 소속인 강진혁(석·박사 통합과정) 학생도 포함됐다.

이들을 지도한 남창우 교수는 "이번 성과는 지난 5년간 연구실이 자체적으로 운영해 온 학부연구생제도의 노력과 열정이 맺은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10만 완주군민들의 특별한 하루

완주군민의 날 성료… 10만 기념품 전달 · 비전 선포식 등 다채

완주군이 인구 10만 시대의 힘찬 출발을 알리는 '제60회 완주군민의 날' 행사를 14일 군청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인구 10만명 달성을 기념하고, 군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높이는 자리로 마련돼 군민과 유희태 완주군수, 유익식 완주군의회 의장, 안호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자매도시인 박종태 칠곡군 부군수, 명예군민 등 각계각층 내빈이 함께한 가운데 열렸다.

특히, 올해는 군민의 날 60주년과 인구 10만 회복이라는 상징적인 이정표를 함께 기념하며 더욱 뜻깊은 시간을 만들었다.

이날 행사는 △완주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난타 · 고고장구 · 라인댄스 등 오프닝 공연 △어린이 취타대의 내빈 인솔 △군민대상 시상 △비전 선포식 △민속경기 및 군민 노래자랑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됐다.

군민의 날 2부 행사로 열린 인구 10만 기념 비전 선포식에서는 10만 번째 주민과 다동이 가족, 100세 이상 어르신 등 '10만 상경 주민' 40여 명에게 기념품이 전달되며 큰 박수를 받았다.

10만 번째 주민에게는 정품 반달이장이, 10만 전후 주민 10명에게는 자전거가, 다동이 가족과 백세 어르신에게는 상품권이 각각 전달됐다.

이어진 비전 선포식에서는 유희태 완주군수가 직접 무대에서 '위대한 전진, 행복경제도시 완주'라는 새로



운 비전을 선언하고, 주요 인사들과 함께 스크린 터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무대 아래에서는 참석자들이 카드섹션으로 응답하며 완주군의 미래 100년을 함께 응원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방송인 김성환 씨가 완주군 홍보대사로 위촉돼 무대에서 소감을 전하고 축하공연을 펼쳤으며,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군민 노래자랑에는 각 읍면을 대표하는 13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개그맨 조래훈 씨의 사회로 진행된 노래자랑에는 완주군 홍보대사 배아현, 현진우씨와 지역가수들이 축하 무대를 장식해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원주=염재복 기자

정읍시, 귀농귀촌인 위한 따뜻한 마을 환영회 열어

정읍시가 귀농귀촌인이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마을 환영회'를 열고 정다운 공동체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정읍시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는 귀농귀촌인이 농촌 마을에 초기에 적응하고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인 마을환영회' 사업을 꾸준히 추진 중이다. 이 행사는 정착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을 중심으로 해당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인사를 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함께 요리를 준비하고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영농 경험과 생활 정보를 공유한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마을 주민들은 새로 들어온 이웃을 반갑게 맞이하고, 귀농귀촌인들도 농촌 삶의 생생한 현실을 들으며 소속감을 키울 수 있다.

지난 4월 옹동면 옹화마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7개 마을에서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으며, 오는 10월까지 8개 마을을 추가해 총 15개 마을에서 이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옹화마을에서 열린 환영회에서는 귀농귀촌학교 13기 수료생인 옥운종 씨가 동기들과 함께 준비한 인절미 떡을 나눠주며 잔치에 따뜻한 정을 더했다. 옥 씨는 "정읍시에서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줘서 감사하다"며 "정읍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0616/정은=김대환 기자



전북농협 · 고향주부모임전북지회, 반찬봉사

고향주부모임전북도지회(회장 김경리)는 지난 12일 정읍에서 전북특별자치도보조급지원사업으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이심점심 반찬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북농협 임직원과 정읍농협 고향주부모임회원 50여명의 정성을 모아 김치, 고기반찬, 밀반찬 등을 직접 만들고 포장하여 정읍관내 어르신 100여명에게 직접 나눠드렸다.

이번 '이심점심 반찬봉사' 사업은 전북특자도보조급 지원을 받아 이뤄진 봉사활동으로 고향주부모임의 손길을 거쳐 지역민에게 더욱 뜻깊은 나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상근 기자



장수경찰서, 공중화장실 비상벨 범죄예방진단

장수경찰서(서장 황태현)는 지난 13일 여성 범죄를 예방하고자 관내 공원 공중화장실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27일까지 계속하여 범죄예방진단팀(qm)과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32곳에 대해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범죄예방 진단 내용은 비상벨 작동 상태 및 112신고 시스템 연계 여부, 비상벨 종류(양방향/단방향), 비상벨 안내문 훼손 상태, 창문 결합 장치 등 안전장치 정상 여부 등으로 범죄취약 요소 발견 시 관계 기관과 연계해 즉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으로 여름철 잦은 비, 높은 습도로 인해 비상벨 중 일부 노후 장치가 전기합선 등 고장 확률이 증가할 수 있어 공중화장실내 설치된 비상벨을 대상으로 집중점검 후 지자체 문화관광과에 환경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황태현 경찰서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범죄예방이 되고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임실경찰서-오수자율방범대, 강력범죄 예방 순찰

임실경찰서(서장 류관송)는 지난 12일 자율방범대와 함께 오수면 범죄취약지역에서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합동 순찰을 실시하였다.

이번 합동 순찰은 오수면을 중심으로 강력범죄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의전공원과 터미널 및 여성 안심 귀갓길 등 범죄취약지역을 주민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해 협력 치안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최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주문사기(일명 노쇼사기) 등 범죄 유형과 예방법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임실=전충영 기자

김제노인복지센터, '어르신 김제 나들이' 진행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노인복지센터(센터장 박남주)가 지난 12일, 김제시민체육공원 일원에서 '기본 UP! 행복충전! 어르신 김제 나들이' 프로그램을 개최해 140여 명의 노인맞춤돌봄 어르신들과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데크라이이션 체조, 줄바덴스, 고고장구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의 흥을 돋웠으며, 생활지원사와 함께하는 미션형 걷기 활동을 통해 자연 속 힐링의 시간도 마련됐다.

또한 매년 자원봉사와 후원으로 함께하고 있는 가족사랑 요양병원은 올해도 건강 부스를 운영, 혈압 · 혈당 측정과 약품 지원 등 기본 건강 서비스를 제공해 어르신들이 보다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망해사, 지역 사랑 담은 성금기탁

김제시 진봉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1일 국가자연유산 명승 김제 망해사(주지 우립스님)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현금 237만9,610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성금은 망해사 신도들과 방문객들이 망해사의 '바람의 종'을 치며 낸 시주금으로 마련됐으며 작년에 이어 네 번째 기탁이다.

망해사 주지 우립스님은 "바람의 종을 통해 모인 작은 정성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서로 돕고 함께하는 실천적 나눔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유석 진봉면장은 "망해사의 꾸준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성금은 진봉면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